

현대 사회의 빠른 발전, 사회적 포동경으로 인하여
버려지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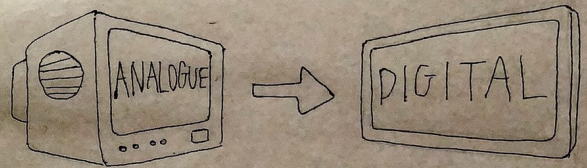
코로나 19로 인하여 '컨택트' 소비가 증가했다.

컨택트 소비란 전촉을 뜻하는 콘택트 (CONTACT) 에
부정을 뜻하는 니 (UN) 을 붙인 신조어로 소비자와
빅 화면이 아닐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람들간의 접촉을 꺼리면서
이런 컨택트 소비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컨택트 소비로는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 음식 배달이 4 올라만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20~30%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량이 60% 이상 증가 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 장갑의 사용이 늘고 있는데 버려진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지렁이 바다를 빙 맴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생산되는
마스크는 1,200만 장으로 이는 버려지는 마스크의 양도
그마기마 라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한 정례
개발리구 역시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 200~300kg을
수거하고 있다고 하니 이대로 간다면 거대한
마스크 산이나 섬이 생길것 같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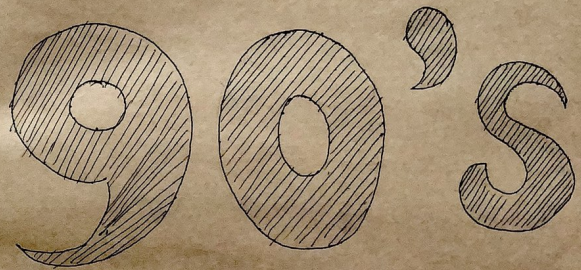
아날로그 기반의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가면서
전자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로 교체 하려는
추세이며, 짧은 주기로 출시되는 신제품을 구매
하려는 소비자의 구매행태으로 인해 불과 몇년
전만해도 신제품이던 전자제품들이 쓰레기로 전락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 전자쓰레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전자쓰레기는 국제 사회에서도 공황이나 자롱한
매변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인제가 미래에는 이런 전자 폐기물 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손들은 끔찍한 환경
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쓰레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며
전자 제품을 쓰지 않는 나라까지 쓰레기들이 널려
퍼지는 주요 원인은 바로 쓰레기들이 수출입을
통해 국가간으로 이동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정과 조각쟁이나
처리 시설 등을 지으려면 넘버현당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수출국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가난한 나라로 전자 폐기물을 떠넘기려고 한다.

그리고 후진국 입장에서는 전자제품을 태워서
돈이 되는 금속들을 더 팔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쓰레기 문제가 지구 곳곳에서 심해지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이 우리나라에서
처리되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서 특히 미진국이
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전선을 태워 유독가스를 아시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90년대 감성을 좋아한다. 90년대에 나는
유치원 시절 초등학생 시절 (4등 국민학교도 거친)
이었는데 랭돌랜드 기적이 어렸을 때 기억 나기도
하고 어렸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 동안 감성이
아닌 하게 남아서 그런지 지금 나이가 90년대
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시절을 그리워
한다.

모름처럼 기기들이 간소화 되면서 일관화된 디자인과 달리 90년대 전자기기들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았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물찾기를 하듯이 브라운관 TV 포함 그려진 기기들을 수집하기도 하며, 레프로 게임들을 수집하여 즐기기도 한다. 여럿을 때 추억이 되는 물건들은 되도록 소장하고 싶은 편이기도 하다.

추억을 좋아하는데 90년대에 열렸던 월드컵이나 그때 활약했던 선수들을 좋아하여, 축구 유니폼을 수집해도 90년대 유니폼 위주로 모으기도 한다.

십여년 전 대학생 시절부터 버려진 교정류나 종이박스 등을 모아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교정류나 모아서 큰 물건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작품들을 재활용 관련 공모전에 출품해서 다수의 수상 경험도 있다. 종이박스나 천, 목재 등을 모아서 인물화도 그려 빈티지한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모름은 작품 활동을 고려해서 마음에 드는 형태의 앙가진 전자 기기들까지 돈을 주면서 까지 구매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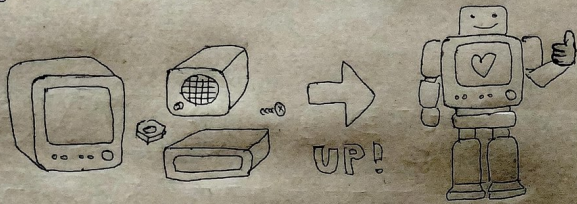


UPCYCLING JUNK ART

업사이클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상 생활에서 나온 폐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품"이라고 한다. 1950년 이후 산업 폐기물이나 공장 폐품의 폐품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는 작가들이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추상 표현주의의 반작용으로 현대 도시의 파괴되고 버려진 폐품을 작품에 차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자원 보존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미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물들을 활용함으로써 '독재' 환경 개념을
강조하는 의미를 띄기도 한다.



또한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인 '업사이클링'
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리사이클링이 기존 제품을
재생시키는 거라면 업사이클링은 폐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업사이클링에 소비 트렌드 이상의 가치를 부여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태형 작가는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재활용을 넘어서 버려지는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으로 "끊임없이 새것을
갈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 활동이 더 이상

당비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며, 나를
포용한 환경과 주변사랑까지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IVE IS LIFE

1960-∞

이번 창작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12월기 예정 중인 개인전에
전시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난 쿡의 신 '디에고
아라도나'의 1작기가 되는 올해 말에 그를
추모하는 의미의 개인 전시회를 기획 중이다.



마라도나는 축구라는 분야에서 점점씩 자라온 인물이라, 나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다.

축구 선수를 넘어 예술가, 혁명가 같은 모습을 보냈던 그는 각종 수상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들은 나에게 영감으로 다가왔다.

마라도나의 선수시절 영광엔 중 하나인 경기전 몸을 풀때 불러 나왔던 노래 "LIVE IS LIFE"가 이번 전사의 제목이며, 마라도나를 포괄한 세상을 떠난 예술가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작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감을 취했던 내가 "LIVE IS LIFE"라는 문장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정확히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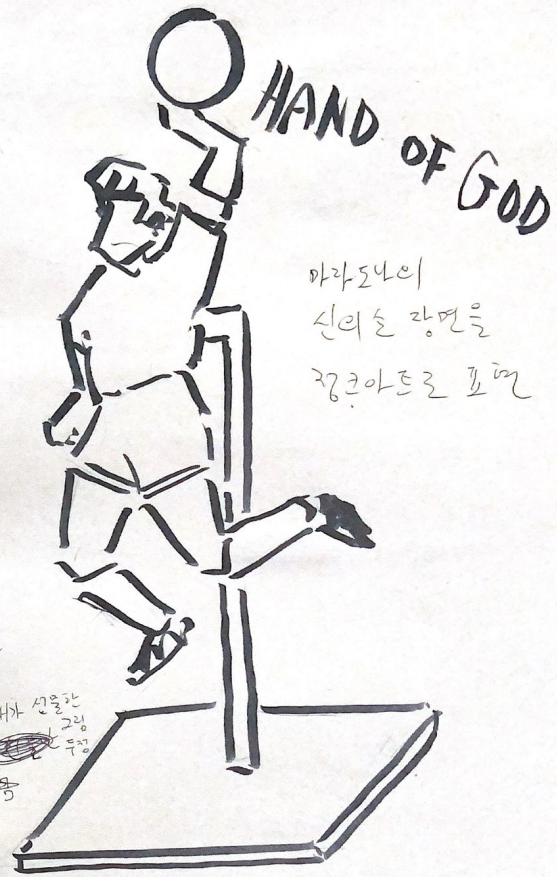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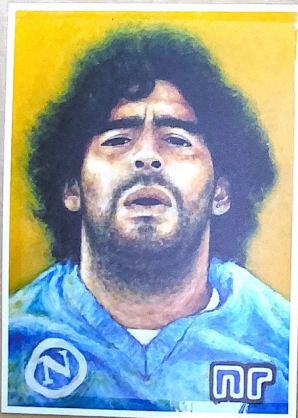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었는데 "산다는 게 삶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여 "라이브 투데이가 인생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나 실은 저 나의 개인전 회이기에 때문에 해석은 내가 편한대로 풀어볼 계획이다.

ADIOS DIEGO

마라도나의 플레이를 생중계로 볼 수 없지만, 축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라는 분야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그가 내놓은 아우라와 강렬한 인상, 통통 튀는 개성, 악동 같은 이미지로 인해 인물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시기부터 제일 많이 그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마라도나가 방한 왔을 때 마라도나를 직접 만났다는 트래비안 강로연에게 그림을 전달해

했는데 쿠키가 마라도나가 SNS에 올린 김인
 사진 한켠에 내가 선물했던 그림이 놓여져
 있는걸 발견 하고 심장이 터질듯이 감격하기도
 했다. 그 SNS 사진은 캡처해서 인쇄해
 액자에 보관하고 있다.

마라도나의 화가들은 보습들은 셀수 없이
 많았는데 유명한 '신의 손' 장면이나 드리블하는
 역동적인 모습의 형태를 오가든 폐품들을
 활용하여 작곡아트로 표현해놓은 게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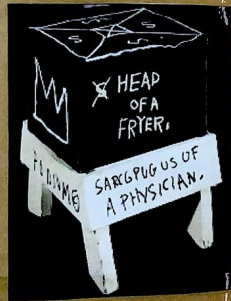
마라도나의
 신의 손 장면은
 작곡아트로 표현

마라도나
 SNS에
 올린게 내가 선물한
 그림이 놓여져
 있는걸 발견 하고
 심장이 터질듯이
 감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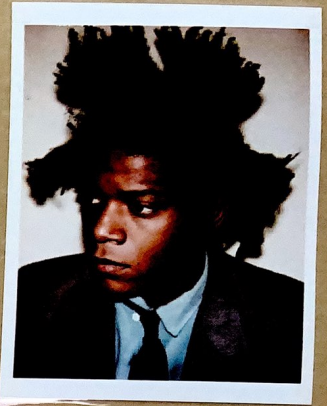


JEAN MICHEL BASQUIAT

예술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면 그게 어떻게
 본인의 모습을 꾸밀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존경하는 아티스트중 한명인 '장 미셸
 바스키아'는 ~~그의~~ 그의 외모와 패션이
 눈에 들어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그의 그림과
 일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북서화가라고
 불리우지만 북서라고
 보기에 그의 그림은 쿨함이



"왕의 자인 사람
 들과 함께 지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상대.방기게도
 나에게도 흥미로운
 변화다. 아마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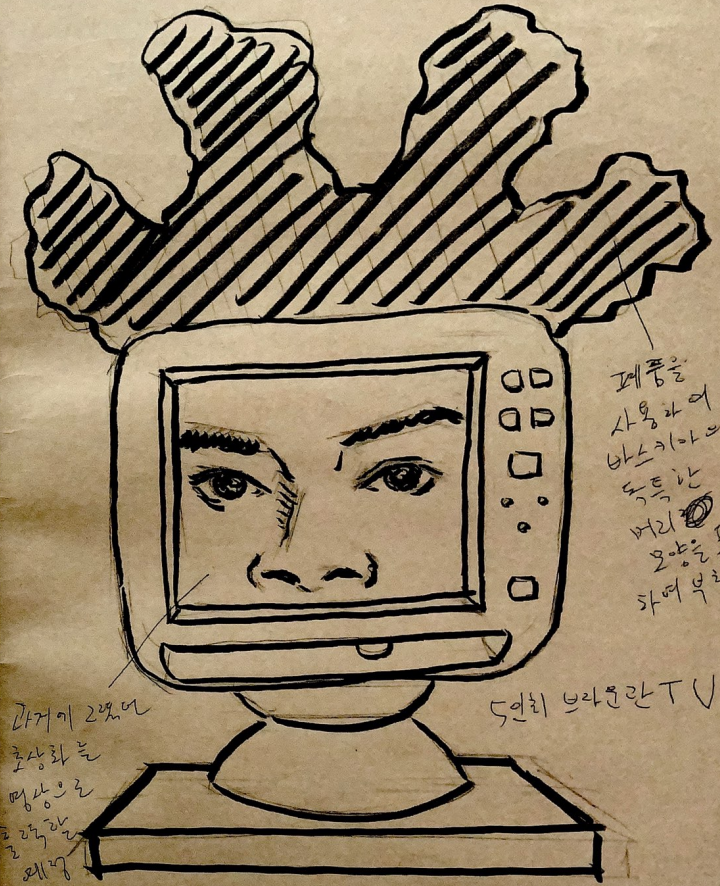


있고 느낌이 있다.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그의 그림을 좋아한다.
 바스키아는 가난한 집안 출신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다 떠돌아 살며 외벽에 그려 피티를
 그리거나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램프, 분필,
 나무판 등을 주워다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고광남 TV나 나무관 등의
페라라를 재료로 모아서
에세리를 넣어 즐거운
생각이며 그의 외모와
바스키아의 반신을 정리아르

패션에 관한 만큼
표현레볼 계획이다.



제품을
사용하여
바스키아의
특징한
머리
모양을 표현
하여 부각

과거에 있었던
추상화는
평상으로
표현한
웨이

5인치 브라운관 TV

미디어 아트
집합

작업 예시



GANGWON FC

5월 말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강원 FC와 공식 팬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 FC 팬들 세 네 명의 영상을 담다가 경기장으로 향하는 오피너스 식의 영상인 것 ~~이~~ 같다. (아직 완성된 영상을 못봤다.) 나는 각급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경기 시간이 맞춰 강원 FC 경기장으로 향하는 내용을 촬영하였는데, 택배를 포장했던



중이 박스위에 강원 FC 입병수 감독님을 그렸다. 그림을 경기장으로 향해서 관중석이 광석을 캐러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스리그 공식 SNS에도 기재가 되기도 했다.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과 영상을 찍게 되어서 감사했고, 이번 캠페이션의 일환중 하나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부끄럽다.

FLOPPY DISKETTE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이동식 저장 장치는 플로피 디스켓이다. 한 때는 널리 쓰였던 제품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이~~가 없게 되었다. 나 역시도 이동식 저장 장치가 CD로 넘어가며 소중하고 있던 디스켓을 전부 처분했는데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한다. 레트로한 디자인의 디스켓을 생각할 때보다 디스켓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되게



들어 인물화를 그려보게 되었다. 디스켓이라는 '저장 매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사람을 기록하곤 기록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로 풀기 볼 생각이며, 여러개의 디스켓을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구상 중이다. 물론 디스켓은 굵거레를 통해 꾸준히 오고 있다.



<남촌현대 문화공간 '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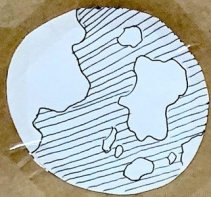
개인전이 예정된 전시 공간은 외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외관 통유리를 통해서 전시작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디피된 작품을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시 공간에 방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공간을 어떤 각도로 어떤 방식으로 디피를 할까 고민을 해본 결과 종이 박스를 여러개 모아서 백면기 넓게 펼쳐 조각 조각을 붙인 다음 사람들이 시선을 끌수 있는 단순 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는 그림을 디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각면이 예술디피방에서 관람했던 '코르와일리' 전시 인상 깊어서 코르와일리 작가의 그림들을 레퍼런스로 정했다. 단순한 낙서같은 그림이지만 강렬하게

다차오는 그림들이 인상 깊어서 참고하기로 했다. 아직 무엇을 그림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시는 12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서 내식대를 풀기용 계획이다.



KEEP

환경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조금이라도 환경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개개인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환경문제에 대한 감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녹색 소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일) 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제품은 새제품 보다는 되도록 중고로 거래를 해서 구매를 사용과 유통 과정까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와 제품쓰기 운동, 거버니 캠페인 운동 등의 환경오염

문제를 동참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기본적인 습관들을 잘 지켜서 환경오염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근을 버리기 전에 각광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해 볼려고 한다. ~~개~~ 개인이 실천하는 태도를 갖추면 미래 후손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ssay

지구를 구하는 캠페인 리얼사임이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12월이 개인선 일정이 많아서 많이 때문에 개인선에 집중시켜 캠페인을 작성하고 있다 평소의 제품을 모브제로 작성을 할 때 환경문제를 개선하라는 의미로 접근하기 보다는 작업 ~~결과~~ 결과물에 필요한 모브제를 찾는 데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캠페인을 작성하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쓰고

